

고흥 풍양 파크골프장, 임시 개장 한 달 3,000명 돌파

임시개장 의견 반영해 코스·안전·편의 개선...9월 정식 개장



고흥 풍양 파크골프장에서 이용객들이 경기를 즐기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6월 말부터 군민을 대상으로 임시 개장 중인 풍양 파크골프장이 7월 말 기준 누적 이용 인원 3,000여 명을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풍양 파크골프장은 고흥군 최초로 조성된 파크골프장이다. 군은 500여 명에 이르는 지역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이용할 시설이 없어 타 지역으로 원정을 다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권역별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풍양면과 과역면 두 곳을 동시에 착공했다. 이 가운데 풍양 파크골프장(27홀)은 지난 2월 준공돼 6월 말부터 군민 대상 임시 개장에 들어갔다.

이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지만, 개장 전인 오전 5시부터 찾아오는 이용객이 있을 만큼 기가 높다. 다만 하절기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휴게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유빈 기자

보성, 중국 농업혁신 현장에 서 미래농업 대응 과제 발굴

보성군은 지난 7월 23일부터 30일까지 7박 8일간 중국 정주, 양릉, 장액, 난주 일원에서 '2026년 농업인 글로벌 역량 향상 농업 해외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관내 농업인 13명과 관계 공무원 5명 등 총 18명이 참여했다. 연수단은 현지 농업 연구기관과 스마트농업단지, 농산물 도매시장, 기후변화 대응 현장 등 총 11개소를 방문했다.

연수는 스마트농업과 기후적응형 농업기술, 사막·건조지역 농업, 우량품종 연구개발, 농산물 유통체계, 신재생에너지 활용 사례를 비교·조사하고 보성농업에 적용할 수 있는 과제를 찾는 데 중점을 뒀다.

첫 공식 일정으로 정주 중원농자 과학기술원을 방문해 옥수수, 밀, 채소 등 주요 작물의 종자 연구개발 동향을 살펴보았다. 고수확·고품질 품종 육성과 지역 재배 환경에 적합한 우량품종 보급체계의 중요성도 확인했다.

/김윤성 기자

명현관 해남군수 "기후대응 센터 건립 시급

해남군이 6일 중앙부처를 방문해 국비 확보를 위한 활동을 펼쳤다.

명현관 해남군수와 군 관계 공무원들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차례로 찾아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건립 등 현안 과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방문에서 해남군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올해 폭염을 비롯해 수년간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와 관련해 해남에 건립되고 있는 국립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의 조속한 건립과 차질없는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명군수는 "잦아지는 이상기후의 피해는 농어업에 가장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를 조기 가동해 기후변화 대응의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고, 국가차원의 대응 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종욱 기자

진도군, 심뇌혈관질환관리는 자기 혈관 숫자 알기부터!

진도군(군수 이재각)은 생애주기별 심뇌혈관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군민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레드서클 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농업인 실용교육 참석자들에 대한 교육을 시작으로, 진도우체국과 진도경찰서를 방문해 총 116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인 심뇌혈관질환은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심뇌혈관질환은 30~40대 나이에도 많이 발생하는데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해 자신의 혈관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건강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 금연, 절주 실천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9대 생활 수칙을 지키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이가영 기자

장흥군, 폭염 대응 축산농가 현장점검 실시

장흥군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8월 6일 회진면 소재 오리 사육농가를 방문해 여름철 폭염 대응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축산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여했으며, 회진면 회진리 소재 오리 사육농가를 방문해 축사 환기상태, 냉방시설 운영, 급수관리, 사료 급여상황 등 폭염 대응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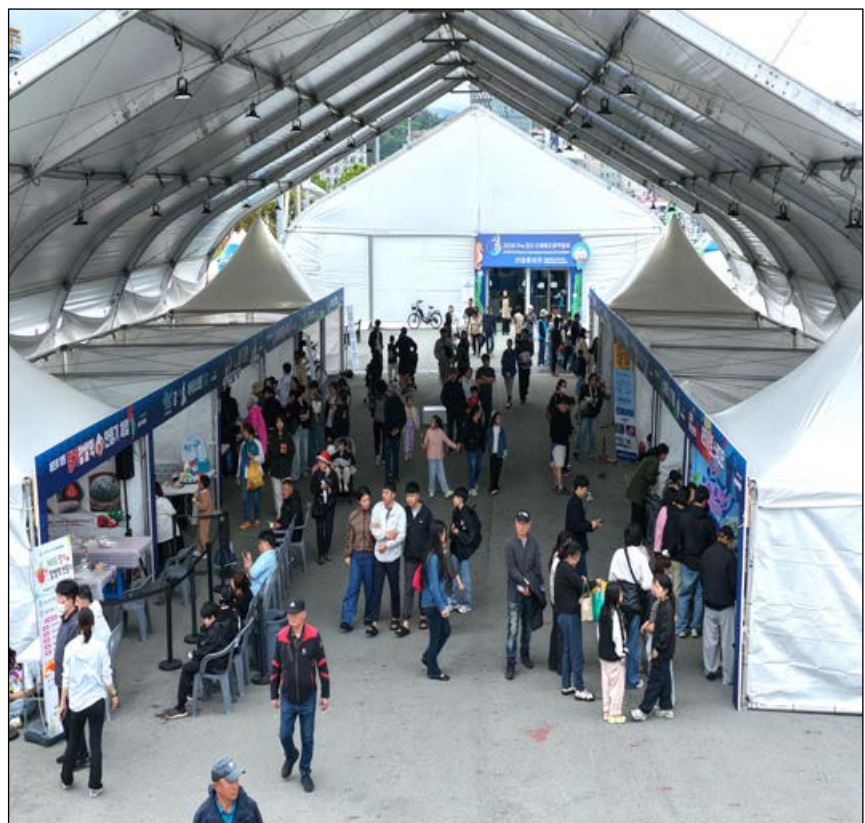
해당 농가는 축사 6동, 2,557㎡ 규모에서 오리 13,500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군은 폭염 취약시간대 관리요령과 축사 내부 온도 저감 방안 등을 안내했다.

또한 가축 폐사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폭염이 지속되는 동안 축사 환경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근 기자

완도 반값 여행 4차 신청 조기 마감! 42억 소비 유발 효과

1~4차 총 33,872명 신청, 관광객 지역 소비로 경제 활성화 보탬



지난 5월 개최된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현장에 몰린 관광객들 모습

/완도군 홍보팀 제공

'완도 반값 여행'이 큰 인기다.

지난 7월 29일부터 4차 사전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몰리면서 예산 소진으로 이를 만에 조기 마감됐다.

1~3차도 신청 인원이 많았지만 4차 조기 마감 신청으로 관광객들의 완도 여행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완도 반값 여행'은 관광객이 숙박·식당·카페 이용, 특산물 구매 등 여행 과정에서 사용한 비용의 절반을 완도사랑상품권(모바일)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최소 소비 금액은 10만 원이다.

지원 금액은 개인(1인) 기준 최대 10만 원, 청년(19~34세)은 최대 14만 원, 팀(2인 이상)은 최대 20만 원, 가족(최대 5인)은 최대 50만 원

이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여행을 오기 최소 1일 전 반드시 '완도 반값 여행' 누리집에 사전 여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에 따르면 7월 30일 기준 '완도 반값 여행'에는 총 33,872명이 참여했으며, 41억 9천만 원의 소비 유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관광객들의 지역 내 소비는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8월 말쯤 반값 여행 5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완도 반값 여행에 보여주신 큰 관심에 감사드립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관광 정책, 혜택 등을 통해 관광객들의 관광 만족도를 높이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

지리산과 섬진강의 풍요로움을 담은 구례군 로컬마켓

구례군 로컬마켓

<https://smartstore.naver.com/guryeshop>